

# KMI 북방물류리포트

**VOL. 145**  
SEP 18 2020

발간년월 2020년 9월 18일 (통권 제145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 
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/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## 주요 동향

- USC, 무르만스크 지역에 조선·해양 단지 설계 착수
- 러시아 아크론 그룹, 철도 운송에 6축 호퍼카 도입
- 러 노바텍, 캄차카에 LNG 재기화 터미널 건설추진
- 극동지역 운항선박의 94%, 선령 10년 이상 노후선
- 바니노 항, 석탄전용 환적단지 건설 1단계 사업완료
- 러 극동북극개발부, 북극 지역 상주 기업 공모·승인
- 델로 그룹, 트랜스 컨테이너 지분 99.6% 인수한다.

## 주요 통계

-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-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## 주요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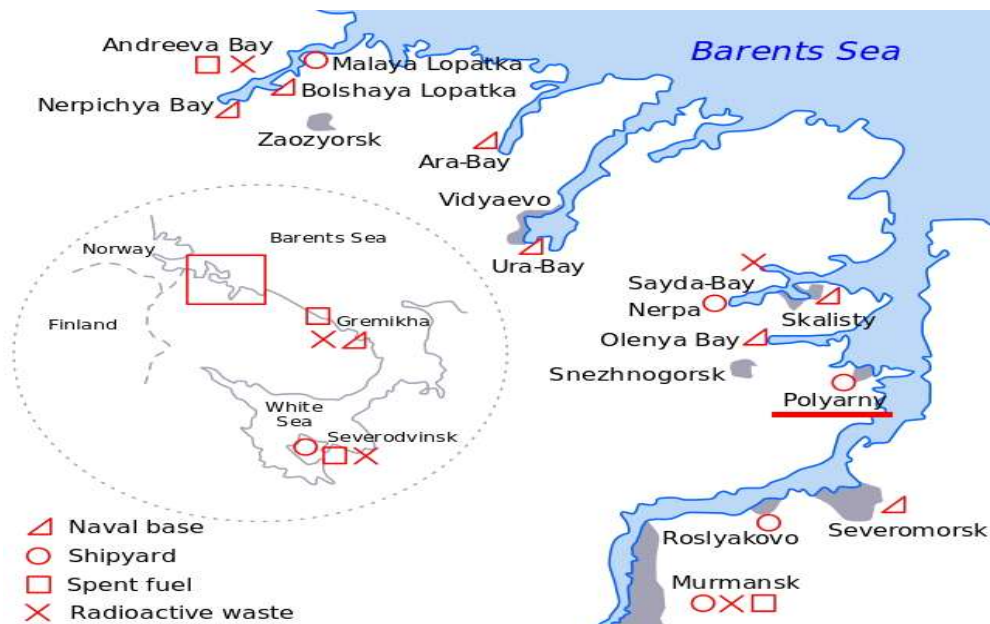


### USC, 무르만스크 지역에 조선·해양 단지 설계 착수

#### ■ USC, 무르만스크 폴랴르니(Polyarny) 지역에 조선·해양 복합 단지 건설을 위한 조사 및 설계 작업 착수<sup>a)b)c)</sup>

- 러시아 국영 조선공사(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, USC)의 알렉세이 라흐마노프(Alexei Rakhmanov) 사장은 “폴랴르니 조선·해양단지 건설을 위한 조사 및 설계 작업에 착수했으며,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”이라고 밝혔음
- 100% 공공 소유인 USC는 약 40개의 조선소와 선박설계회사, 선박수출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, 러시아 전체 조선해양 관련 시장의 8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7년 3월, ‘대통령령 394’호(Deg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.394)를 통해 USC 설립과 함께 2020년까지 1,500여 척의 선박을 주문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

그림. 무르만스크 폴랴르니 지도와 러시아 북부함대 배치도



자료: [https://www.wikiwand.com/en/Snezhnogorsk,\\_Murmansk\\_Oblast](https://www.wikiwand.com/en/Snezhnogorsk,_Murmansk_Oblast)

## ■ 기존 조선소를 기반으로 선박 건조와 수리, 수산물 처리가 가능한 복합 단지 건설 예정

- 2019년 11월 무르만스크 지방 정부와 USC는 기존 조선소(SRZ-10)를 기반으로 폴랴르니 지역에 조선·해양복합 단지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음
- 무르만스크 지방 정부는 폴랴르니 조선·해양 단지에 선박 건조와 수리뿐만 아니라 어선의 정박과 하역, 보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 단지를 건설하고, 이를 통해 무르만스크 지역의 만성적 선박 수리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음
- USC는 조선소를 기반으로 한 해양 경제 단지의 조성은 사업 다각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

진희권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hkjin@kmi.re.kr/051-797-4766)

---

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tass.com/economy/1196615>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- b) <https://www.snm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54631>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- c) [https://www.wikiwand.com/en/Snezhnogorsk,\\_Murmansk\\_Oblast](https://www.wikiwand.com/en/Snezhnogorsk,_Murmansk_Oblast)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
## 러시아 아크론 그룹, 철도 운송에 6축 호퍼 카 도입

### ■ 아크론 그룹, 최대 적재량 113.5 톤의 새로운 호퍼 카 새로 도입<sup>a)b)</sup>

- 세계적인 광물 비료 생산업체인 아크론 그룹(Acron Group)은 러시아 최초로 철도 운송에 6축 호퍼 카(Hopper Car)를 도입했음
- 철도 화차의 일종인 호퍼 카는 석탄, 자갈 및 곡물과 같은 벌크화물 운반에 주로 이용되며, 빠른 하역을 위해 바닥이 열리거나 여러 개의 해치를 장착한 것이 특징임
- 아크론 그룹이 이번에 도입한 호퍼 카는 6축에 8개의 해치가 장착되어 있으며, 차체 부피는 160m<sup>3</sup>, 최대 적재량 113.5톤으로 기존 화차에 비해 적재량이 50% 이상 증가했음

그림. 러시아 아크론 그룹이 새로 도입한 호퍼 카



자료: <https://www.railwaypro.com/wp/first-six-axle-hopper-car-order-in-russia/>

### ■ 아크론 그룹은 신규 호퍼 카 도입을 통해 철도 물류비용 절감을 기대

- 아크론 그룹 물류 담당 부사장 이고르 보그단(Igor Bogdan)은 그룹이 광물 비료 생산과 물

류에서 앞선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며, 신규 호퍼 카 도입으로 철도를 통한 광물 비료 배송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

- 아크론 그룹은 2,500대 이상의 화차를 이용해 원자재와 완제품 등 연간 8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철도를 통해 수송하고 있음

진희권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 
(hkjin@kmi.re.kr/051-797-4766)

---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worldfertilizer.com/materials-handling/10092020/acron-group-first-in-russia-to-transport-fertilizer-using-hopper-car/>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- b) <https://www.railwaypro.com/wp/first-six-axle-hopper-car-order-in-russia/>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
## 러 노바텍, 캄차카에 LNG 재기화 터미널 건설 추진

### ■ 러시아 아바차 만(Avacha bay)에 LNG(액화천연가스, Liquefied Natural Gas) 재 기화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임

- 러시아 언론사인 코메르산트(Kommersant)에 따르면,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(Novatek)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바차 만 LNG 재기화 터미널 건설에 합의했음
- 아바차 만은 러시아 함대가 기반을 둔 전략적 지역으로 이전에는 프로젝트가 거부된 바 있음.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와 기업 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논의 끝에 액화가스 재 기화 터미널 프로젝트가 합의됨
-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바텍 사는 캄차카를 통해 아시아-태평양 시장으로 액화가스를 운송할 것임

### ■ 레오니스 미켈슨(Leonid Mikhelson) 노바텍 대표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-캄차트스키의 연간 가스 수요를 약 3억~4억㎥로 추정했으며, 재 기화 터미널의 최대 용량을 연간 6만 톤으로 추정함

- 노바텍사는 야말 LNG (Yamal LNG) 환적 단지가 건설될 베체빈스카야 만(Bechevinskaya Bay)에서 소형 유조선으로 페트로파블로프스크-캄차트스키(Petropavlovsk-Kamchatsky)에 액화가스를 운반할 계획임
- 2022년 말까지는 베체빈스카야 만 LNG 환적 단지에서 천연가스를 아이스클래스 급 LNG 운반선에서 일반 LNG유조선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이 프로젝트에 따라 페트로파블로프스크-캄차트스키 지역은 일부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임. 이를 위해서는 베체빈스카야 만 LNG 환적 단지에서 페트로파블로프스크로 가스를 수송한 후 특수 시설에서 재 기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야함
-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 베체빈스카야 만에서 페트로파블로프스크-캄차트스키 지역을 연결하는 최대 길이 140km의 파이프 관을 건설해야 함
- 하지만 복잡한 지형적 문제로 인해 건설 비용은 고비용인 약 1,000억~1,2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 조달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름

그림. 러시아 국방부와 캄차카 주정부 간 회담



자료: [http://vladimir-pelevin.blogspot.com/2020/08/blog-post\\_64.html](http://vladimir-pelevin.blogspot.com/2020/08/blog-post_64.html)

김지영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jiyeong111@kmi.re.kr/051-797-4765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  
(051-797-4765)

---

참고자료

- a) [http://vladimir-pelevin.blogspot.com/2020/08/blog-post\\_64.html](http://vladimir-pelevin.blogspot.com/2020/08/blog-post_64.html)(검색일: 2020년 9월 11일)
- b) <https://www.kommersant.ru/doc/4451148> (검색일: 2020년 9월 11일)

# 극동지역 운항 선박의 94%, 선령 10년 이상 노후선

## ■ 극동지역 선박 1,053척 가운데 66척이 선령 10년 이하<sup>a)</sup>

- 이 가운데 특히, 선령이 28~38년 된 페리선이 홀름스크(Kholmsk)~바니노(Vanino) 노선을 운행되고 있음
- 사할린 주정부는 페리선의 선령을 낮추기 위해 선박 2척을 건조해, 2022년까지 운항 가능 하도록 함
- 사할린-쿠릴열도 노선을 운행하는 이고르 파르크후트지노브(Igor Farkhutdinov) 여객선은 29년, 기파니스(Gipanis) 여객선은 28년 되었음
- 올해 5월 러시아 네프스키(Nevskyi) 조선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(PV22)의 첫 번째 선박인 여객선 Admiral Nevskoy를 진수한 바 있음

## ■ 선박의 노령화 문제는 기술 및 인프라의 현대화와 관련

- 극동 러시아의 프리고로드노예(Prigorodnoe) 항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은 건설된 지 30년 정도 되었는데, 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령이 높은 것은 항해 안전뿐만 아니라 항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의 하나임
- 블라디미르 슈트코(Vladimir Shutsko)<sup>b)</sup> 항만공사 사장은 선박 현대화가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당면한 과제라고 언급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세희 현장실습생, 부산대학교  
(051-797-4776)

### 참고자료

a) <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9/85521/> (검색일 : 2020년 9월 16일)

b) 러시아 연방 정부 예산기관 사할린·쿠릴·캄차카 항만공사 사장



# 바니노 항, 석탄전용 환적단지 건설 1단계 사업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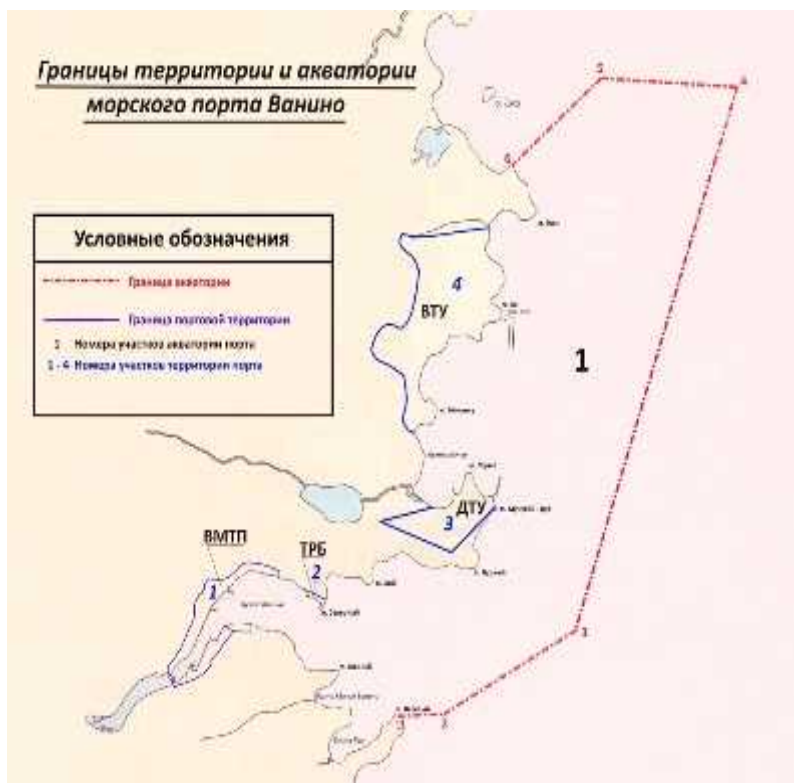
## ■ 바니노 항만의 석탄전용 환적단지 건설 사업의 1단계가 완료되었음<sup>a)</sup>

- 건설 1단계인 해상 구조물, 부지 내 네트워크, 철도 부지, 도로 등 수리 및 건설 작업을 완료했음
- 항만 재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인프라 시설의 현대화 및 철도 연결까지 추진될 예정임
- 이 같은 항만 건설 사업은 바니노트란스우골(Vaninotransugol)사(社)<sup>b)</sup>가 추진하고 있는데, 2단계까지 완료될 경우, 연간 석탄 처리 물동량이 2,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임

## ■ 올해 1월 석탄전용 환적단지 건설을 위해 바니노 항만 부지를 확장했음<sup>c)</sup>

- 바니노 항만은 올 1월 석탄수송용 대형선박의 원활한 입항을 위해 항만 부지를 28.7ha로 확장했는데, 앞으로 대형선 접안을 위해 항만 수심을 19.3m까지 준설한다는 방침임

그림. 바니노 항만 부지 경계선



자료: <https://portnews.ru/news/290584>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세희 현장실습생, 부산대학교  
(051-797-4776)

---

## 참고자료

- a) журнал Морские порты №2(183)2020 В ПОРТУ ВАНИНО ЗАВЕРШЕН ПЕРВЫЙ ЭТАП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ПЕРЕГРУЗ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
- b) 콜마르(Kolmar)그룹사(社)에 속해있음
- c) <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9/82799/> (검색일: 2020년 9월 16일)

## 러 극동북극개발부, 북극 지역 상주기업 공모·승인

### ■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북극지역 상주기업을 공모하여 모두 5개의 기업 프로젝트를 승인했음<sup>a)b)</sup>

- 알렉산더 크루티코프(Alexander Krutikov) 러시아 극동·북극개발부 차관은 아르한겔스크 주와 무르만스크 주에서 각 2건,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 각각 1건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, 이 5개 프로젝트에 대해 158억 루블의 투자가 이루어져 약 552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음
- 5개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
  - 아르한겔스크 테미스토프(Thermistoff): 열 목재 생산 조성 사업
  - 아르한겔스크 포모르 해운(Pomor Shipping):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및 대량 화물 창고 재구축 사업
  - 무르만스크 노르트 스타(Nord Star): 비티노(Vitino) 항만의 석유 저장소 기술 재정비 사업
  - 무르만스크 리나카마리 항만(Liinakhamari port): 페첸가(Pechenga) 시립 지구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
  -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살레하르트의 세탁물 생산 사업
- 크루티코프 차관은 채택된 프로젝트가 자원 채굴 목적이 아닌, 물류 및 서비스 부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, 북극 지역의 경제 발전 및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<sup>b)</sup>
-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을 위한 5개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음
- 해당 위원회 회의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극동북극개발부 차관, 극동 개발 공사 대표, 아르한겔스크 주, 무르만스크 주,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지역 당국자, 각 투자기업 대표가 함께 참여했음

### ■ 8월 말,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의 상주기업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하는 연방법이 시행되었음<sup>a)</sup>

- 7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극 지역 상주기업에 대한 우선권 제공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음
- 이를 통해 러시아 북극 지역 총 5백만km<sup>2</sup>에 달하는 러시아 및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구역

이 조성될 예정임

- 해당 경제구역의 상주기업으로 선정되면,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세부 절차가 단순화되는 이점이 있음
- 북극 지역 경제구역에서는 관세자유구역의 세관 절차를 따르게 되며, 연방법에 따라 북극 지역 상주기업에게 연방, 지역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규정을 적용함
- 8월 말에 러시아 극동·북극개발부가 상주기업에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법이 발효되었음
- 상주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10일 이내에 등록되어 경제구역에서 관련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

김현진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
(hyunjink24@gmail.com)

---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tass.ru/ekonomika/9421889> (검색일: 2020년 9월 13일)
- b) <https://www.tv21.ru/news/2020/09/11/dva-proekta-kolskogo-zapolyarya-stali-rezidentami-arkticheskoy-zony> (검색일: 2020년 9월 13일)

## 델로 그룹, 트랜스 컨테이너 지분 99.6% 인수한다.

### ■ 올해 3월 델로 그룹(Delo Group)은 트랜스컨테이너 지분의 99.6%를 확보하기로 결정<sup>a)</sup>

- 소수 주주기업들은 델로 그룹에 트랜스컨테이너 지분에 대한 매입을 제안했으며, 이에 델로 그룹은 트랜스컨테이너 지분의 99.6%를 확보하기로 결정했음
- 1개 주식 당 8,679.52루블이며, 총 지분의 99.6%는 약 1,200억 루블을 초과하는데, 델로 그룹은 해당 법률에 따라 17일 내 주식 대금을 지불해야 함

### ■ 작년 11월 델로 그룹은 603억 루블에 트랜스컨테이너 주식의 50%+2를 매입

- 소수 주주기업인 VTB은행, 예니세이 캐피탈(Yenisey Capital)은 델로 그룹에 트랜스컨테이너 주식의 49.64%에 대한 매수를 제안했음
- 델로 그룹 사장<sup>b)</sup>은 주식 매입으로 인해 파트너 기업인 로사톰(Rosatom)과 협력 중인 교통·물류사업(항만, 철도, 컨테이너 등)에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세희 현장실습생, 부산대학교  
(051-797-4776)

---

#### 참고자료

a) журнал Морские порты №2(183)2020 ГРУППА «ДЕЛО» КОНСОЛИДИРУЕТ БОЛЕЕ 99,6% АКЦИЙ «ТРАНСКОНТЕЙНЕРА»

b)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쉬쉬카레프(Sergey Nikolaevich Shishkarev)



## 주요 통계



표.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9/2020 증가율
극동지역	12.43 (+2.4)	5.91 (+3.9)	18.34	(+3.0%)
북극해	1.21 (-12.2%)	4.74(-8.1%)	5.95	-9.3%
발트해	9.27(-2.4%)	7.75(-1.1%)	17.02	-1.7%
아조프-흑해	6.92(+14.6%)	10.22 (-3.5%)	17.0	+2.9%
카스피해	0.25 (+34.8%)	0.44 (+7.6%)	0.69	+17.9%
합계	29.96(+2.8%)	29.05(-2.1%)	59.01	+0.1%

\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울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(051-797-4776)

### 참고자료

a) <https://portnews.ru/news/297118/>(검색일: 2020년 8월 30일)

b) <https://portnews.ru/news/298567/>(검색일: 2020년 8월 30일)

표.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219,609.9	67,330.9	219,091.0	66,552.3	518.9	778.6
광물 제품	1,293,321. <sub>8</sub>	47,036.6	1,270,259. <sub>9</sub>	21,769.2	23,061.9	25,267.4
연료 및 에너지 제품	1,086,837. <sub>8</sub>	20,147.3	1,086,775. <sub>5</sub>	20,147.3	62.3	0
생고무 및 화학 제품	5,846.9	63,534.3	5,326.5	63,217.7	520.4	316.6
가죽원료, 모피 제품	2.5	1,320.1	0.3	1,281.5	2.2	38.6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98,196.5	6,827.9	97,613.3	6,679.3	583.3	148.6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402.4	31,383.8	396.3	31,115.6	6.1	268.1
금속 및 금속 제품	24,749.1	52,658.2	24,671.4	51,694.9	77.7	963.3
기계류	10,362.2	458,418.9	9,900.6	458,156.1	461.5	262.8
기타	115,106.7	32,042.5	86,380.2	30,816.8	28,726.6	1,225.7
합계	1,767,598. <sub>1</sub>	760,553.2	1,713,639. <sub>5</sub>	731,283.5	53,958.5	29,269.7

\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  
(051-797-4776)

## 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>(검색일: 2020년 8월 30일)

표.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(단위: 천 톤, 달러)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,달러	톤	천,달러	톤	천,달러	톤	천,달러	톤	천,달러	톤	천,달러
선어.,냉장어	1.7	6.1	-	-	2	6.1	-	-	-	-	-	-
냉동어	72,788. 1	87,545. 6	1,038	2,129.9	72,788	87,545. 6	1,038	2,129.9	0	0.0	-	-
연어류	1,361.6	4,183.3	-	-	1,362	4,183.3	-	-	0	0.0	-	-
넙치	628.5	2,853.7	-	-	629	2,853.7	-	-	-	-	-	-
가자미	789.4	504.5	-	-	789	504.5	-	-	-	-	-	-
가자미류	2,542.6	2,105.5	-	-	2,543	2,105.5	-	-	-	-	-	-
청어	17,792. 2	12,885. 9	-	-	17,792	12,885. 9	-	-	0	0.0	-	-
대구	6,902.8	18,172. 4	-	-	6,903	18,172. 4	-	-	-	-	-	-
명태	27,510. 8	28,081. 2	-	-	27,511	28,081. 2	-	-	0	0.0	-	-
농어	13.9	67.0	-	-	14	67.0	-	-	-	-	-	-
간, 곤이 (어란)	1,813.3	7,916.2	-	-	1,813	78,890. 9	-	-	-	-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1,118.4	1,896.1	-	-	1,118	1,896.1	-	-	-	-	-	-
생선 필렛, 어육	1,922.0	5,535.9	82	270.1	1,880	5,425.7	82	270.1	42	110.2	-	-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-2.8	-79.2	98	569.0	-3	-79.2	98	569.0	0	0.0	-	-



갑각류	6,663.1	98,534. 5	27	194.6	6,663	98,528. 6	27	194.6	-	5.9	-	-
계류	5,860.2	93,019. 8	-	-	5,860	93,013. 9	-	-	-	5.9	-	-
조개류	1,832.9	5,161.2	-	-	1,813	5,137.9	-	-	20	23.3	-	-
가리비	318.5	409.7	-	-	319	409.7	-	-	-	-	-	-
오징어류, 문어류	1,296.1	2,814.3	36	184.9	1,276	2,791.0	36	184.9	20	23.3	-	-
수산 무척추 동물	754.5	2,733.4	-	-	755	2,732.2	-	-	0	1.1	-	-
해삼류	185.3	548.5	-	-	185	547.4	-	-	0	1.1	-	-
성게류	569.2	2,184.9	-	-	569	2,184.9	-	-	-	-	-	-

\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  
(051-797-4776)

## 참고자료

a) <http://dvtu.customs.gov.ru/folder/230467>(검색일: 2020년 8월 30일)